

보도자료

2012. 8. 24.



대 법 원

Supreme Court of Korea

담당부서

인사총괄심의관실

담당자

제1심의관 이효제 (☎3480-1274)
제2심의관 배용준 (☎3480-1289)

공보관실 ☎ 3480-1451

법조일원화 실시에 따른 새로운 법관 임용 방안 마련

- 대법원은 법원조직법 개정으로 2013. 1. 1.부터 실시되는 법조일원화에 대비하여 새로운 법관 임용 방안을 마련하였음
- 종래 시행하여 오던 5년 이상 법조경력자에 대한 임용 방식을 전면적으로 개선하여 법관으로서의 기본적 자질과 품성에 대한 평가 절차가 강화된 법조일원화 시대의 원칙적인 임용 방식을 수립하였음
- 위와 같은 원칙적 임용 방식에 의하여 단독판사 자원을 선발하되, 합의부 중심 재판구조, 인력수급 등의 현실적 필요, 법관 임용을 위한 최소 법조 경력을 순차 확대하는 법원조직법 부칙의 취지 등을 고려하여, 3년 이상 5년 미만의 법조경력자를 대상으로 하는 보조적인 임용방식도 마련하여 배석판사 자원을 선발할 예정임
- 아울러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고 법조일원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원숙한 법조인을 선발하여 임기 중 특정 사무분담만을 전담하도록 하는 전담법관 제도를 함께 실시할 예정임

□ 새로운 법관 임용 방안 개요

- 2013년부터 개정 법원조직법이 시행됨에 따라 경력법조인만을 대상으로 법

관을 선발하는 법조일원화가 실시될 예정임

- 판사로 임용되기 위한 최소 법조경력은 원칙적으로 10년이나, 부칙의 경과 규정을 통하여 2017년까지 3년, 2019년까지 5년, 2021년까지 7년으로 경력 요건을 완화하였음
- 그 동안 대법원은 사법연수원 수료예정자를 대상으로 하는 즉시임용을 주된 임용방식으로, 법조경력 5년 이상의 법조인을 대상으로 하는 법조경력자 임용을 법조일원화에 대비한 보조적 임용방식으로 실시하여 왔는데, 개정 법원조직법에 따라 즉시임용을 폐지하고 종래의 법조경력자 임용 방식의 발전적 재정립을 통하여 법조일원화 시대의 원칙적인 임용방식(이하 ‘일반 법조경력자 임용’이라 함)을 수립하였음
- 다만, 합의부 중심 재판구조, 인력수급 등의 현실적 필요, 법관 임용을 위한 최소 법조경력을 순차 확대하는 법원조직법 부칙의 취지 등을 고려하여, 법조경력 3년 이상 5년 미만의 법조경력자를 대상으로 하는 보조적인 임용 방식(이하 ‘단기 법조경력자 임용’이라 함)도 마련하였음
- 아울러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고 법조일원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원숙한 법조인을 선발하여 임기 중 특정 사무분담만을 전담하도록 하는 전담법관 제도를 함께 실시할 예정임

□ 새로운 법관 임용 방안 도입 경위

- 대법원 법관인사제도개선위원회는 2012. 5. 전담법관제도의 도입을, 2012. 7. 임용 대상자별로 임용절차를 분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조일원화 실시에 따른 새로운 법관 임용 방안을 건의하였음
- 대법원 법관인사위원회는 2012. 7. 26. 인사제도개선위원회의 건의 내용을 대폭 수용하는 법관 임용 방식 개선안을 의결하였고, 2012. 8. 16. 열린 대법관 회의에서 새로운 법관 임용 방안을 채택하였음

□ 대상자별 임용 절차 분리

○ 임용 절차 분리의 필요성

- 단독판사 자원과 배석판사 자원을 단일한 절차에서 선발할 경우 임용대상자의 법조경력 차이, 주된 심사 항목의 차이 등으로 선발절차의 효율성과 선발결과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어려움

○ 임용 절차 분리의 개요

- 단독판사 자원은 일반 법조경력자 임용 절차, 배석판사 자원은 단기 법조경력자 임용 절차, 원숙한 법조인은 전담법관 임용 절차에 의해 선발함
- 단기 법조경력자 임용 절차는 법조일원화 성숙기까지의 이행기 동안 배석판사 자원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2017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용될 예정임

□ 대상자별 임용 절차의 특징

○ 일반 법조경력자 임용

- 법조경력 5년 이상의 법조경력자를 대상으로 함(종전 법조경력자 임용에서와 동일한 법조경력을 요건을 하였고, 종전 법조경력자 임용에서의 실제 법관 임용자의 평균 법조경력은 7년 내지 8년이었음)
- 다만 개정 법원조직법에 의하면 임용 대상자의 법조경력 요건은 2020년부터는 7년, 2022년부터는 10년으로 점차적으로 강화될 예정임
- 법원 업무에 적응하는 데 필요한 최소 기간만 배석판사로 근무하고 그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단독판사로 근무함
- 법조일원화 정착 후 적용될 원칙적 임용 방식으로, 서류심사와 실무능력평가를 강화하여 지원자의 자질과 실무능력을 철저히 평가하고, 바람직한 역량평가 방안 수립을 위하여 발주한 정책연구용역 결과 등을 반영한 인성

(역량)평가 방식 개선으로 법관으로서 요구되는 기본적 품성을 면밀히 검증함

- 재판장으로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실무능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가늠하기 위한 실무능력평가가 중요한 심사 기준이 될 것임

○ 단기 법조경력자 임용

- 법조경력 3년, 4년의 법조경력자를 대상으로 함(법무관 경력 포함)
- 상당 기간 배석판사로 근무하면서 재판장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실무능력을 함양할 기회를 가지게 될 예정임
- 사법연수원 성적, 실무능력평가 결과 등을 토대로 한 발전 가능성에 대한 잠재력평가가 중요한 심사 기준이 되고, 법관으로서의 기본적 자질과 품성에 관한 인성평가도 함께 실시될 것임
- 2013년과 2014년도는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법조경력자들만이 임용대상자에 해당하므로 사법연수원 성적 등을 토대로 한 위 심사 기준이 적용되지만, 2015년부터는 법학전문대학원을 수료한 법조경력자가 임용 대상자에 포함되므로, 이들의 발전 가능성에 대한 잠재력 평가를 포함하여 2015년부터 적용될 임용대상자들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 기준에 관하여는 향후 다각적인 자료를 축적하고 분석하여 이를 마련할 계획임

○ 전담법관 임용

- 법조경력 15년 이상의 법조경력자를 대상으로 함
- 원숙한 법조인이 국민 생활과 밀접한 재판을 담당하여 신뢰를 증진하고 이상적인 법조일원화의 모습을 제시할 수 있도록 원칙적으로 임기 중 같은 법원에서 동일한 사무분담을 맡을 예정이고, 이러한 취지를 가장 잘 실현할 수 있는 민사소액 전담법관 선발을 우선 시행함
- 지원자가 장기간 법률사무에 종사하면서 발현한 품성과 자질을 적극적으로 평가하여 임용 여부를 결정함

□ 향후 일정(잠정안)

○ 일반 법조경력자 임용

- 2012. 8. 27. 임용 공고
- 2012. 9. 초순경 지원서 교부 및 접수
- 2012. 10. 중순경 서류전형 합격자 통지
- 2012. 10. 하순경 실무능력 및 인성역량 평가
- 2012. 11. 중순경 최종면접
- 2012. 12. 초순경 임용

○ 단기법조경력자 및 전담법관 임용

- 2012. 9. 하순경 임용 공고
- 2012. 9. 말경 ~ 2013. 10. 초순경 지원서 교부 및 접수
- 2013년 정기인사 일정에 연동하여 임용 및 배치 시기 결정
- 상세한 임용 일정은 임용 공고문에 포함될 예정임